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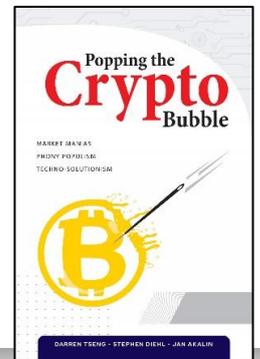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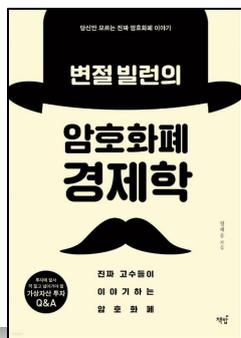
도서로 살펴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

[도서명]

- 외계어 없이 이해하는 암호화폐
- 변질 빌런의 암호화폐 경제학
- 비트코인의 지혜의 족보
-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
- 암호화폐 버블의 붕괴(Popping the Crypto Bubble)

■ 가상자산 서적 트렌드

- 2022년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축
 - 새해 전망에 있어서는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되찾아올지, 아니면 추락이 가속화될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혹은 새로운 기술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
 -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는 등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제도권 편입도 현실화되고 있는 중
- 국내외에서 발간된 가상자산 도서 중 언론 및 독자평, 전문가 추천 결과 등을 반영해 총 5권을 선정하여 간단하게 소개
 - 시중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많은 도서들이 발간되어 있는데, 저자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가지각색
 - 기존에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도서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시장에 대해 냉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도서들이 주목받고 있는 편
 - 가상자산 입문자를 위해 쉽게 설명하거나 경제학, 인문학을 통해 시장을 접근하는 등 다채로운 시각을 가진 도서들이 발간
 - 마지막으로 소개한 ‘암호화폐 버블의 붕괴(Popping the Crypto Bubble)’는 국내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특정 챕터만 요약하여 수록하였음
 - 요약 관련해서는 저자(스테판 딜)에게 직접 서면 허락¹을 받았으며,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의역으로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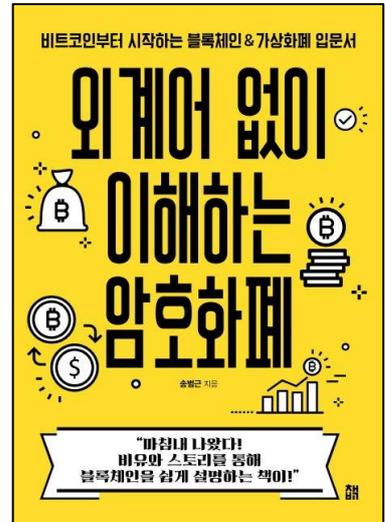


¹ [저서 요약 및 번역 관련 저작권 문의에 대한 저자 ‘스테판 딜’의 답장]

This is fine. A summary of the book is fair use. So long as it cites the source I don't see any issue. Go ahead.

○ [외국어 없이 이해하는 암호화폐]

- 저자: 송범근
- 특징: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을 타겟으로 어려운 전문용어보다 친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쉽게 설명.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거나, 기존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입문서
- 핵심 3문장
 - 1)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말라”
 - 2) “블록체인은 그저 기술일 뿐이다”
 - 3) “블록체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뒀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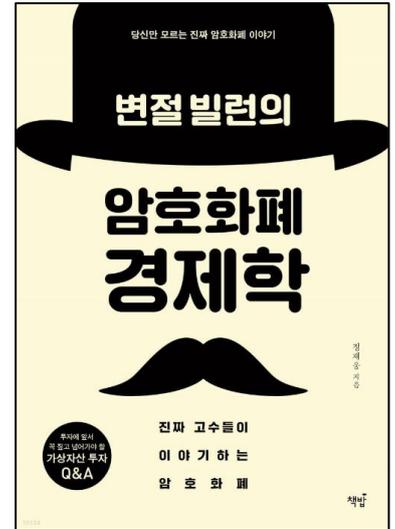


주요 목차

<i>화폐와 비트코인</i>	화폐의 본질과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살펴보는 블록체인의 원리 비트코인이 좋은 점 비트코인이 안 좋은 점 비트코인의 경쟁자들
<i>디앱과 이더리움</i>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디앱 탈중앙화를 꿈꾸는 분야별 디앱 디앱의 시초,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경쟁자들
<i>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리플</i>	프라이빗 블록체인 리플
<i>암호화폐의 미래</i>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진화

○ [변절 빌런의 암호화폐 경제학]

- 저자: 정재웅
- 특징: 경제학 원리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 게임이론, 인플레이션, 빅맥지수 등의 경제학적 용어를 알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장점
- 핵심 3문장
 - 1) “화폐는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을까”
 - 2) “필요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조달하는 금융”
 - 3) “혁신의 측면에서 보면 가상자산은 화폐로써 ‘창조적 파괴’를 이루었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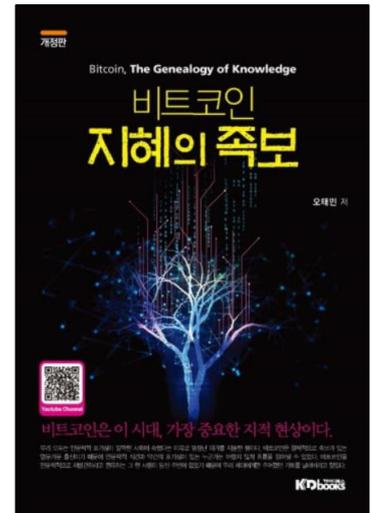


주요 목차

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 의미와 역할이 다양해진 화폐의 역사 화폐의 등장과 발전: 금에서 금 태환 정지 선언까지 화폐의 전환: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과 달러의 부상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과 진정한 달러의 시대
암호화폐의 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불만 비트코인의 등장과 그 핵심인 블록체인의 발전 암호화폐의 또 다른 버전 이더리움의 등장과 발전 가상자산시장의 대안으로 등장한 알트코인과 그 변화 De-Fi와 NFT의 등장,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 다시 2018년 가상자산 버블: 가상자산은 화폐가 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경제학	화폐경제학: 우리 일상을 움직이는 힘 제도경제학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금융경제학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장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한계: 시장의 문제
화폐의 미래, 가상자산의 미래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의 시대는 끝났는가 금융의 시대: 실물과 금융 암호화폐, 가상자산, 그리고 CBDC

○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 저자: 오태민
- 특징: 비트코인을 인문학 관점에서 해석한 도서.
술술 읽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도서와는 접근하는
관점이 독특해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음
- 핵심 3문장
 - 1) “비트코인에는 엘리트가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이 없다”
 - 2) “네트워크에 올라온 디지털 자산들은 기존의 금융 관련
범주들을 무가치하게 만들 것이다”
 - 3) “평온한 나라의 국민에게 비트코인은 한낱 투기 수단이거나
흥미로운 발명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삶과 직결되기에 대체품이 따로 없는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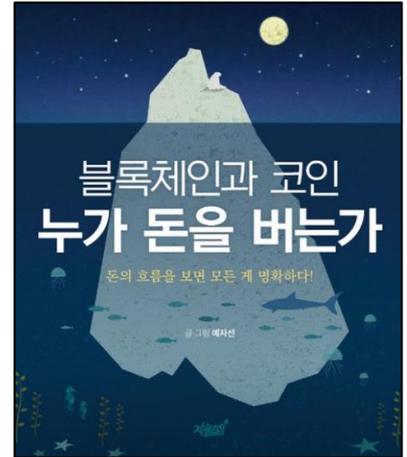
주요 목차

비트코인의 지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기회
	대청봉 코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
	신천지와 페이스북
	정부와 게임을 해서 지지 않으려면
	인문학적 질문의 부재
	화폐에 얽힌 인문학적 질문을 무시하는 경제학 전공자들
	오리너구리
	화폐는 사회적 장부일 뿐 (이외에도 더 많은 소제목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
비트코인의 족보	비트코인의 이해를 돕는 인문학의 핵심개념
	화폐이야기
	비트코인과 시장의 흐름
	핵심용어와 개념
	스마트콘트랙트의 개념과 쟁점

※[비트코인의 지혜] 파트에는 중간레벨 제목이 부재하여 소제목을 기입

○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

- 저자: 예자선
- 특징: 가상화폐를 ‘돈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저자의 뚜렷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살펴보는 것도 글에 빠져드는데 큰 도움
- 핵심 3문장
 - 1) “돈의 흐름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하다”
 - 2) “어떤 기술이 진짜인지 구별해야 한다”
 - 3) “돈 버는 사람은 블록체인 코인 만들고, 토큰형 코인 찍고, 거래소 하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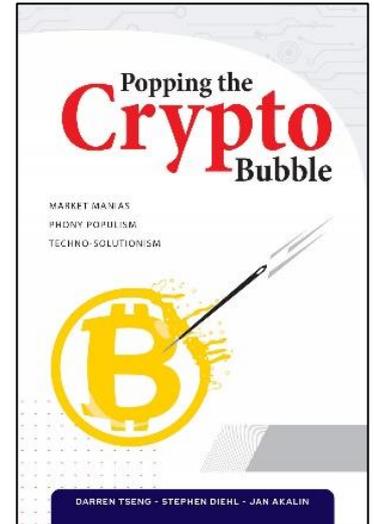


주요 목차

1	이거 하나만 질문해보자 - 정말 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고?
2	블록체인의 기술적 원 - 기본만 알면 ‘기능’과 ‘활용’은 저절로 판단된다
3	기술 발전? - 다른 블록체인과 코인들은 뭐가 다를까?
4	비즈니스, 각 국가의 입장, 붕괴 조짐
5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암호화폐 버블의 붕괴(Popping the Crypto Bubble)]

- 저자: 스테판 딜(STEPHEN DIEHL) 외 2명
- 특징: 엔지니어 시각에서 바라본 크립토 시장을 설명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할 당시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진 불안전성과 위험을 끊임없이 제기
- 핵심 3문장
 - 1) “암호화폐는 어려운 기술 용어를 사용하고 비주류 경제학 개념을 그럴듯하게 차용했지만, 실체는 대중들의 감정을 정교하게 이용한 사기에 가까움”
 - 2) “개발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습과 다르게 변해버린 현실 세계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탈중앙화라는 기술자유주의 환상에 빠지게 됨”
 - 3)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된 환경에서 고객 데이터와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한계와 결함이 존재”



주요 목차

1	서문(Introduction)	14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s)
2	크립토의 역사(The History of Crypto)	15	블록체인주의(Blockchainism)
3	역사적인 시장 매니아 (Historical Market Manias)	16	사기&스캠(Frauds&Scams)
4	경제적 문제(Economic Problems)	17	웹3(Web3)
5	기술적 문제(Technical Problems)	18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6	가치적 문제(Valuation Problems)	19	크립토 저널리즘(Crypto Journalism)
7	환경적 문제(Environmental Problems)	20	ICO(Initial Coin Offerings)
8	암호화폐 문화(Cryptocurrency Culture)	21	랜섬웨어(Ransomware)
9	윤리적 문제(Ethical Problems)	22	금융 포퓰리즘(Financial Populism)
10	크립토 종교 집단(The Cult of Crypto)	23	재정적 허무주의(Financial Nihilism)
11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24	규제(Regulation)
12	크립토 거래소(Crypto Exchanges)	25	결론(Conclusion)
13	디지털 금(Digital Gold)		

[참고] 암호화폐 버블의 붕괴(Popping the Crypto Bubble)

■ 서문(Introduction)

- 암호화폐는 어려운 기술 용어를 사용하고 비주류 경제학 개념을 그럴듯하게 차용했지만, 실체는 대중들의 감정을 정교하게 이용한 사기에 가까움
- 암호화폐는 현재의 권력 구조와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써 경제, 기술, 정치, 법률, 윤리, 문화 등을 아우르는 21세기 가장 흥미롭고 파괴적인 기술로 등장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앙 권력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암호화폐는 이에 대해 “중앙집중식 권력남용을 계속해서 방관할 것인가? 차라리 무정부주의가 낫지 않은가?”라는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음
- 이 책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진 기술적인 한계, 대중들이 가진 환상, 지난 시간 동안 이론 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함
 - 물론 기술적 완성도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를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의 암호화폐는 여전히 기술적, 보안적, 경제적, 환경적 결점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암호화폐 문화(Cryptocurrency Culture)

- 암호화폐 문화의 첫 번째 원칙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화폐를 재창조하는 것
 - 암호화폐 문화에는 ▲크립토아나키즘(Cryptoanarchism), ▲오스트리아 경제학파(Austrian Economics), ▲기술자유주의(Technolibertarianism)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적 움직임이 존재
- [크립토아나키즘] 크립토아나키즘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가까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는 사회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자, 이를 국가 자체의 고유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아나키즘이라 불리는 무정부주의가 등장
 - 특히 크립토아나키즘은 정부와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 및 재정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저항하며 완전한 자유를 주장
 - 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완전한 익명성
 - ② 검열이나 제한 없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
 - ③ 규제나 보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 국가의 핵심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우월성으로 국가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립토아나키즘의 밑바탕
 - 크립토아나키즘은 국가의 완전한 파괴 대신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로 관료주의를 해체하며 인터넷을 통해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주장
 - 이들에게 암호화 기술은 약자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강자에게는 투명성을 강요하는 핵심적인 수단
- 아니키즘 정치의 특징은 그들이 원하는 사회가 ‘실현 가능’을 넘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는 사실 마케팅적인 장치에 불과
 - 민주주의에서는 집단적 권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게도 하지만, 크립토아나키즘에서는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현혹
 -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현재 속한 집단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며, 결국은 크립토 세상이라는 또 다른 권력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했을 뿐임
-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와 비개입적 정부 형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비주류 경제학파
-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관찰 및 측정과 같은 경험적 틀에 기반하는 정통 경제학과 달리 순전히 연역적 추론으로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이론화
 -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추상적인 추론과 언어적 논리를 사용하여 경제 현상과 인간의 행동에 관해 설명
 - 정부 역할론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제학파는 경기 침체 시 정부의 개입은 필수라는 시각이지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이에 대해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
-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정치적 소명은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특히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금본위제(gold standard)²와 같은 상품 기반 화폐 시스템을 주장하고 옹호
 - 하지만 금의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 보유액을 초과한 경제 성장은 경제 위축과 주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박을 유발할 수 있음
 -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 생산 위축 → 가계 명목임금 하락 → 가계 소비 침체 → 기업 이익 감소 → 생산성 하락으로 악순환이 이어짐

² 고정 가격으로 돈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 기반 통화 체제

- 비트코인과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매우 유사한 원칙과 이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적극적으로 수용
 -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합리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
- [기술자유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들은 기술 트렌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해커 문화란, 시스템적인 제약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을 즐기는 개발자들의 문화 (컴퓨터 범죄 행위자를 지칭하는 해커라는 용어와 달리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
 - 해커 문화의 철학은 인터넷이 처음 개발될 당시부터 존재했었고, 그들의 핵심적 가치는 ▲공유, ▲개방성, ▲분권화, ▲자유로운 접근성, ▲사회 개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해커 문화가 생겨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소스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누구나 수정할 수 있으며 재배포도 가능한 오픈소스 운동이 활성화
 - 이 운동을 계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대거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Linux)³’ 라는 무료 운영체제(OS)
 - 여기에 더해 깃허브(GitHub)⁴와 같은 플랫폼에 프로그램 코드를 공유⁵하고, 전 세계 개발자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생겨나기 시작
-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커 문화의 주류였던 급진주의는 온건주의로, 반권위주의적 성향들은 시장순응적 사고방식으로 변화
 - 해커 문화의 반권위주의는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인해 사라졌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현실 세계에서 실없는 농담으로 전락
- 개발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습과 다르게 변해버린 현실 세계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탈중앙화라는 기술자유주의 환상에 빠지게 됨
 -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앞세워 도피주의적 환상을 만들었으며, 진보적 포용 대신 소수의 특권층이 권력과 자본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념으로 변모

³ 윈도우와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 중 하나로, 컴퓨터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자가 관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코드를 중심으로 개발한 것

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⁵ 무료 라이선스 지정 시

■ 결론(Conclusion)

- 크립토 시장은 분노와 희망, 두려움, 탐욕, 그리고 이상주의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이야기에 불과
- 크립토는 결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다양한 실험 중 하나에 불과하며, 금융의 ‘미래’라기 보다 오히려 포퓰리즘에 기반한 금융의 ‘과거’일 뿐
 -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아이디어 그 자체는 새로울 수 있지만,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본성을 자극하는 메커니즘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음
 - 수세기 동안 발생했던 사적 화폐 발행 및 투자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은 다양한 결과와 교훈을 남겼고, 이들은 오늘날의 현행법으로 구체화되었음
 - 1800년대와 1920년대의 경제 위기 속 열풍과 공황 그리고 붕괴를 되새기면서 암호화폐가 이와 똑같은 비극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물론 기존 전통 금융시스템이 부유한 사람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암호자산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는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오늘날 우리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
 - 혁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 번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 필요함
 - 즉, 투자자들은 기업으로부터 공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
 - 하지만 크립토 시장은 기존 전통시장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 많은 불투명성과 시스템 위험, 사기를 부추기고 있음
- 기술이 주도하는 금권정치(plutocracy)⁶는 우리가 그렸던 미래가 아니며, 암호화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밈(Meme)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을 것

<선임연구위원 권세환(pursue312@kbf.com) ☎02)2073-5764>

⁶ 경제력이 있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이 지배하는 정치